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규범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현상을 조사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① (가): 특정 사회의 도덕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② (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③ (나): 도덕 명제의 논리 구조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④ (나):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실제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도덕 관행을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 행위에서 타당성 주장을 한 발언의 타당성을 위한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자들은 언어 행위와 함께 상황에 따라 진리성 주장, 정당성 주장, 진실성 주장으로 이루어진 타당성 주장을 제기한다. 청자는 화자의 타당성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며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

- ①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견해를 비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② 발언의 진실성은 의사소통 행위에 의한 합의에서 도출된다.
 ③ 이상적 담론은 선호가 일치하는 참여자들 사이에만 가능하다.
 ④ 이상적 담론 규칙은 공론장 외부의 개입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⑤ 이상적 담론에서 제기된 주관적 견해는 양심에 의해 정당화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큰 도(道)가 사라지니 인의(仁義)가 생기고,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있게 된다. 도는 항상 하는 것이 없지만 되지 못함이 없어서, 이를 지키면 만물은 저절로 변화될 것이다. 뛰어난 선비는 그 도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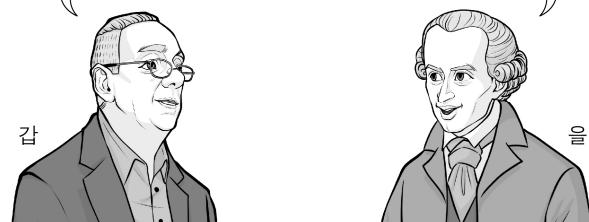
을: 인간은 본성이 선하고 천하에는 도가 있다. 그러나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면서 가르침이 없다면 백성은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성인(聖人)은 이를 걱정하여 인륜(人倫)을 백성에게 가르칠 것을 명하였다.

- ① 갑: 오륜(五倫)의 도를 행하여 도덕 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② 갑: 삶의 고통을 끊기 위해 연기(緣起)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③ 을: 무위(無爲)의 도에 따라 지혜를 버리고 덕을 실현해야 한다.
 ④ 을: 본성을 함양하고[養性] 인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⑤ 갑과 을: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齊物] 바라보아야 한다.

4. 다음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는 그 행위가 덕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준칙을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행위의 도덕성은 그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① 갑: 모든 공동체에 적용 가능한 행위만을 습관화해야 한다.
 ② 갑: 덕을 소유하고 발휘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
 ③ 을: 의지의 준칙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다.
 ④ 을: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⑤ 갑과 을: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행위이다.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정의는 그것이 어떠한 대가로든 매도되면 정의이기를 그친다.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범죄자는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 형벌의 법칙은 정연 명령이다.

을: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법은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로 대표하며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다.

(나)

〈법례〉
→: 비판의 방향
A, B: 비판의 내용

〈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

- ① A: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② A: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써 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③ B: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함을 간과한다.
 ④ B: 범죄의 경증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됨을 간과한다.
 ⑤ B: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모든 이론은 실존 문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힘을 사용할 능력을 잃고 단절된 상태인 분리는 고립을 유발하고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게 되지요.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인간 사이의 합일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과 합일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열정이고 인류를 유지하는 힘이지만, 모든 합일이 곧 성숙한 사랑은 아닙니다. 상대를 자기에게 속한 일부로 여기는 방식의 합일은 사랑의 미성숙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개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성은 단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음을.

- ① 성숙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과 열정에서 나올 수 없다.
- ② 상대방을 소유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합일도 불가능하다.
- ③ 타인과 합일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④ 사랑하지 않으면 고립 탈피와 인간다움 실현 모두 불가능하다.
- ⑤ 분리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합일을 추구하는 욕망을 지닐 수 없다.

7. 다음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람은 인(仁)을 갖추고 항상 예(禮)로써 행동해야 선(善)하게 되며, 예는 본래 꾸미는 것보다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 머리에 쓰는 관[冕]은 예의 일부로서 원래 삼베로 만들지만 지금은 흔한 실로 만드니 이 또한 따를 만하다. 어진 사람은 평소 의복은 소박하면서도 타인을 만날 때나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세련된 의관을 정제한다. 이는 형식[文]과 본질[質]이 조화를 이룬 군자의 덕을 갖춘 것이다.

<보기>

- ㄱ. 군자의 의복 착용은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다.
- ㄴ. 의복은 때와 형편에 따라 예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 ㄷ. 예의 근본은 경건한 내면이 아니라 세련된 외형에 있다.
- ㄹ. 의복은 항상 소박해야 할 뿐 격식을 차리려 해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8.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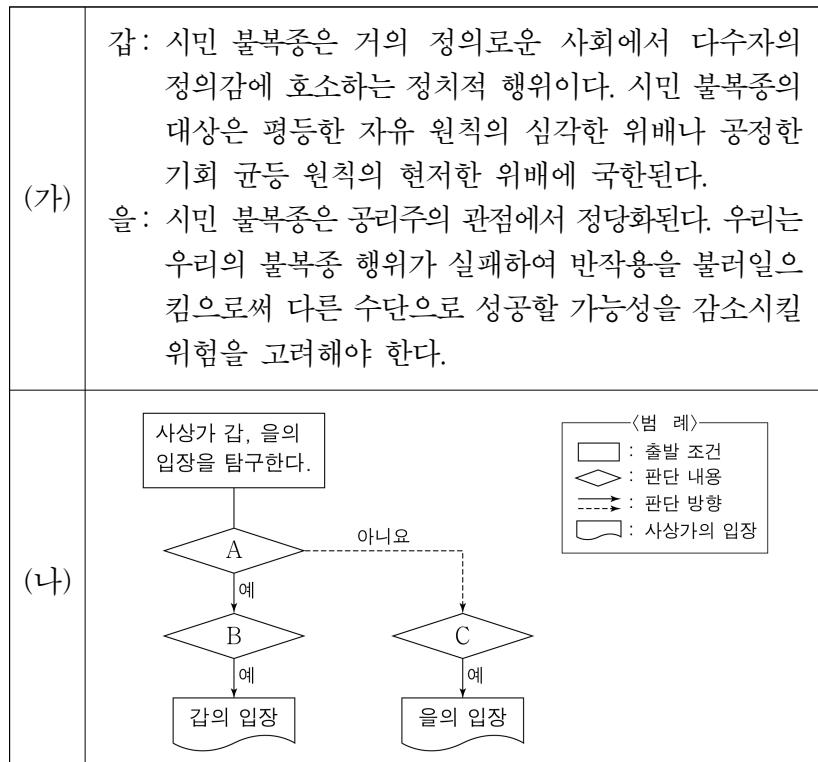
○○○○년 ○○월 ○○일

칼럼

통일은 신뢰 없이 불가능하며, 신뢰는 화해와 협력의 실천으로 증진된다. 전쟁을 종식하지 못한 채, 이념과 체제는 물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차이가 심해진 남북한이 하루아침에 정치적 통일을 이를 수는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는 화해, 그리고 분야별 상호 협력으로 차이를 서서히 줄이는 노력이 우선이다. 화해와 협력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외형만의 통일을 서두른 탓에 정치적 통일 후에도 불신을 극복하지 못해 내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다른 분단국의 사례도 있다. 이를 유념하여 정치적 통일에 앞서 정부뿐 아니라 경제·언론·종교·문화·학문·체육 등 시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 ① 통일에 대한 점진적 접근으로는 체제의 통일이 불가능하다.
- ② 민간 교류를 수반한 협력으로 남북한 간 신뢰를 쌓아야 한다.
- ③ 화해와 협력을 정치적 통일에 필요한 과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
- ④ 타국의 경험에서 통일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 ⑤ 정치적 통일은 남북한 간 이질성 완화 추진의 선결 과제이다.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기>

- ㄱ. A: 합법적 권위에 맞서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 ㄴ. B: 시민 불복종은 민주 체제 유지를 위한 모든 시민의 권리인가?
- ㄷ. B: 시민 불복종은 행위자의 양심에 부합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 ㄹ. C: 다수가 공리 증진을 위해 합의한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불가능한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미는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되고,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도 적용되지만,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동시에 동물이기도 한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이 세 종류의 만족 중 미에 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판단 대상의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이 규정한다.

<보기>

- ㄱ. 미는 개념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준다.
- ㄴ. 선, 미, 쾌적함의 만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가 있다.
- ㄷ.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
- ㄹ. 오직 미적 판단만이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판단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1. 그림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와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사용합니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는 대신, 공정한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떠한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 속에 있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 ① 원초적 합의는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다.
- ②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는다.
- ③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까지 합의되지는 않는다.
- ④ 순수 절차적 정의에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있다.
- ⑤ 무지의 베일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른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고로 누구나 죽음을 맞는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여의면 음식도 맛있지 않고 음약도 즐겁지 않으며 거처함에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禮)로써 정성스럽게 장사[葬]를 치러야 한다.
을: 어리석은 중생은 마치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번뇌와 망상에 빠져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고로 큰 자비(慈悲)로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기고 구제하여 편안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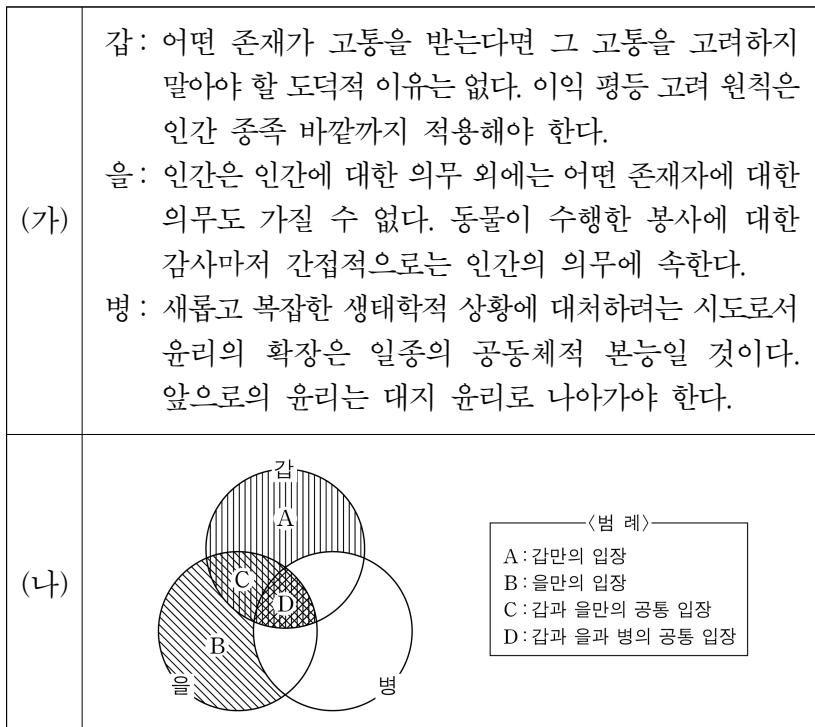
- ① 갑: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마땅히 애도해야 한다.
- ② 갑: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면서 삶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 ③ 을: 중생의 죽음은 태어남과 상관없이 생기는 고통일 뿐이다.
- ④ 을: 열반에 이른 사람도 삶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는 없다.
- ⑤ 갑과 을: 삶에 대한 애착으로써 죽음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이외에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강제력에 의한 방법도 불가피하게 병행되어야 한다. 이때 강제력은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본성상 선한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고 본성상 악한 것은 오직 악의지뿐이기 때문이다. 정의 그 자체만으로는 정의보다 못한 어떤 것으로 전락하기 쉽다.

- ① 비합리적 수단으로서의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이다.
- ②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없다.
- ③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할 필요성도 가능성도 없다.
- ④ 강제력은 도덕적 통제를 받으며 최소한으로 행사되는 것이 최선이다.
- ⑤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A: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ㄴ. B: 동물 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 ㄷ. C: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ㄹ. D: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다문화 사회는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무시하고 기존 문화에 강제로 동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을: 동의합니다. 국수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갑: 공존을 위한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맛을 내는 채소와 과일들이 골고루 섞여 맛있는 샐러드가 되듯이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해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엄연히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주류 문화를 인정하는 방식의 공존을 지향해야 합니다.

- ①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타 문화의 가치를 부정해도 되는가?
- ②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통합된 문화를 향유해야 하는가?
- ③ 각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유지하는 공존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④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가?
- ⑤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국제 정치에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세력 균형 정책은 국가 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행위이다.
을: 국가들 간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의 모든 권리가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다. 그 모든 것은 오직 보편적 국제 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

<보기>

- ㄱ. 갑: 국제 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다.
- ㄴ. 을: 세계 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 ㄷ. 을: 합법적 국제 관계는 공화제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다.
- ㄹ. 갑과 을: 국제 정치에서 국가의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님을 인식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기술의 한계는 이러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행복과 불행 모두에 관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므로 기술은 지도가 필요하며 인간 자신이 지도자로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명백히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며 그러한 욕구의 서열을 규정해야 한다.

- ① 기술 자체는 그 기술을 실현하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②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 문제는 기술 자체로써 극복해야 한다.
③ 기술에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을 성찰하여 기술을 지도해야 한다.
④ 기술 자체의 독자적 목적으로 인해 기술의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⑤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변화될 수 있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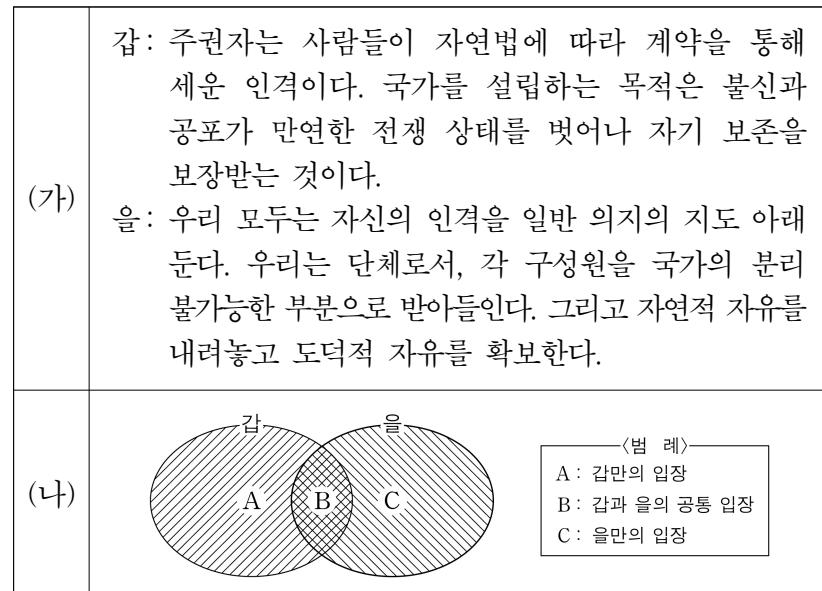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 있다는 것과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독특한 유형의 가치를 가지며, 이러한 가치는 다른 개체들에 대한 효용성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문제 상황>

최근 육류 수요 증가로 축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A 씨는 대량 생산에 용이한 공장식 사육 방식의 축산업을 시작할지고민하고 있다.

- ① 동물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려하세요.
② 동물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③ 동물은 도덕적 행위 주체이므로 그 권리가 존중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④ 동물을 이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산출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⑤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동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명심하세요.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기>—
ㄱ. A: 사회 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ㄴ. B: 사회 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ㄷ. B: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ㄹ. C: 사회 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사회들 간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을: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만인이 분담해야 할 지구적 의무이다.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하여 빈민을 도와야 한다.

- <보기>—
ㄱ. 갑: 원조의 목적은 원조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이다.
ㄴ. 갑: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ㄷ. 을: 원조에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지 않다.
ㄹ. 갑과 을: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할 때가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